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부산중기청, 글로벌사우스 에너지·기계플랜트 시장개척단 통해 1,451만달러 수출계약 추진

- 베트남·말레이시아에서 에너지·기계플랜트 중소기업 10개사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과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2026년 글로벌사우스 에너지·기계플랜트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중기청과 남부발전은 **베트남과 말레시아 현지 주요 EPC 기업*, 발전·플랜트 기자재 중개업체 등 74개사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변압기, 열교환기, 콘트롤밸브, 화재 확산방지보온재 등 기술력을 갖춘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 10개사와 1:1 매칭 상담을 지원했다.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일괄 수행하여 발전소·산업플랜트 등을 건설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각각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94건의 상담을 통해 4,546만달러(약 613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1,451만달러(약 195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현지 기업과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지속적인 거래 및 사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지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발전설비 현지 진출기업 및 말레이시아 오일·가스·에너지협회(MOGSC)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현지 에너지·EPC시장 동향과 조달 요건, 인증 및 규격 확보,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기업·기관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수출 기회를 발굴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 상담이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사진>

<table>
<tr>
<td></td>
<td>
</td>
</tr>
<tr>
<td>베트남 호치민 수출상담회 상담장 모습
(10,13(화), LOTTE SAIGON HOTEL)</td>
<td>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수출상담회 참가자들과 함께
(10.15(목), PARKROYAL COLLECTION HOTEL)</td>
</tr>
</table>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수출지원센터	책임자	팀 장	김영주 (051-601-5170)
		담당자	수출전문관	최진희 (051-601-5165)